주·야간보호센터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410호 (음력 9월 2일)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쌀값 안정화 위해 시장 격리 더 늘려야"

정부 발표대책에 "현실 인식 없이 급조" 평가 절하

신곡 매입 확대·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6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정부가 내놓은 쌀값 안정화 방안을 일부 긍정 평가하면서도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6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9.25 쌀값 대책'을 통해 올해 수확기에 구·신곡을 통틀어 90만t 나락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발표 시점, 구곡 격리 수용, 가격 결정 기준 등은 긍정적이지만 정확한 현실 인식 없이 급조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농민들이 요구한 가격 안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대책"이라며 "시장 격리 곡은 밥 한공기 300원 기준으로 매입해야 한다. 제 자식 같은 나락을 최저가로 사달라고 애원하라는 제도다"고 혹평했다.

또 "신곡 매입 물량은 정부 발표보다 최소 50만t은 늘려야 한다. 쌀값은 정부도 인정하듯 197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구곡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써 당연히 시장 격리해야 하며, 신곡 역시 최소 2021년산 보다 50만t 많은 120만t은 매입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식량 안보는 농정의 최고 가치로써 국가 정책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로 식량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수입쌀 40만 8000t 완전 시장격리 ▲2021년산 구곡 최저가 낙찰제 매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브리핑을 통해 45만t의 쌀을 10~12월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까지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만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김재환 기자

해남군, '달마고도·남파랑길 가을여행 추억쌓기' 걷기 행사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새벽걷기·마냥걷기 진행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서 달마고도와 남파랑길을 걷는 가을여행을 떠나보세요."

전남 해남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달마고도·남파랑길 가을여행 추억 쌓기'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적인 걷기 명소로 거듭난 명품 둘레길 달마고도와 땅끝까지 이어지는 남파랑길 걷기는 가을빛 물들 숲길과 땅끝바다를 조망하며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10월 8일, 11월 12일, 12월 10일)에는 일출을 맞이하며 걷는 '새벽걷기'가 진행된다.

또 넷째 주 토요일(10월 22일, 11월 26일)에는 달마고도와 남파랑길(89, 90코스)을 끝까지 천천히 걸어보는 '마냥걷기'가 있다.

트레킹가이드가 함께하며,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호를 실천한 참여자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새벽걷기'는 차수별 30명, '마냥걷기'는 차수별 40명씩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남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달마고도 페이지) 또는 관광실 축제팀 전화(061-530-5159~516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선선한 가을날, 단풍이 물든 달마고도의 숲길과 갈대밭이 아름답게 펼쳐진 남파랑길 바닷길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힐링의 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묘지 개장에서 매장돼 있던 5·18행불자 신원 확인

추가 행불자 발견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옛 광주교도소 관심 높아져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묘지 개장 과정에서 발견·분류된 유골 중 1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행불자 발견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8면〉

26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묘지에서 발견된 유골 중 1구의 유전자 정보(DNA)가 5·18행방불명자 78명 중 1명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2구에 대해서도 유전자 정보가 일부 일치, 추가 발견 가능성도 있다고 조사위는 내다보고 있다.

5·18 당시 행불자가 옛 광주교도소 등지에 암매장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최초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옛 광주교도소는1980년 5·18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의 주요 격전지이자 민주·인권 투사가 투옥돼 고문당하던 장소다. 5·18사적지 22호로 지정돼있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는 3공수여단과 20사단 병력들이 주둔했다. 교도소 부근 민간인 희생자 대부분은 1980년 5월21일부터 3공수여단이 머무는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3공수여단은 담양·곡성 방면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국도 입구를 차단하고 시위 차량은 물론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차량에까지 총격을 가했다.

실제 1980년 5월 21일 담양군 대덕면의 한 마을 주민 2명은 광주에서 벽지를 구입해 돌아오는 길에 계엄군의 집중 사격으로 숨진 뒤 교도소 앞 고랑에 암매장됐다.

같은 날 오후 3공수여단은 전남대에서 포승줄로 붙잡은 시민군들을 트럭에 태워 광주교도소로 이송하던 중 최루탄을 터뜨려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5월 22일에는 트럭을 몰고 아내·막내딸과 함께 진도군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일가족이 광주교도소 근처 진입로로 빠져나가려다 계엄군의 총에 맞았다.

3공수여단은 21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교도소에 주둔하다가 이후에는 상무충정작전 준비를 위해 20사단 62연대와 교대했다.

지난 2019년 12월 20일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지목된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 미상 유골 40여구가 발견돼 군과 경찰, 5월단체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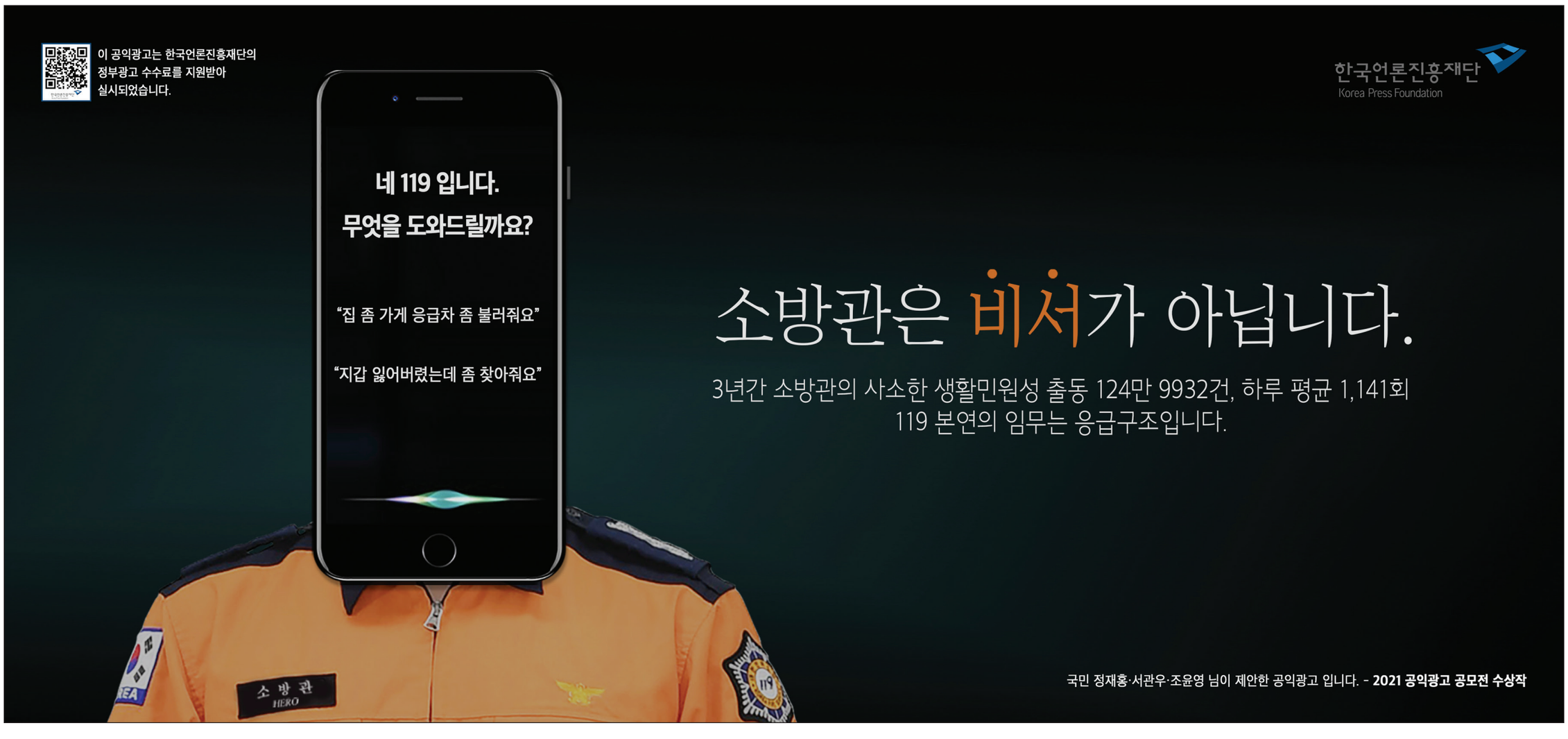
5·18 직후 교도소 관사 뒤편에서는 시신 8구, 교도소 앞 야산에서는 시신 3구가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80년 5월31일 '광주사태 진상 조사' 문건에는 이른바 '교도소 습격 사건'으로 민간인 27명(보안대 자료 28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16~17명의 신원과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소 52명이 교도소 내에서 사망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1989년 기무사령부 511분석반이 작성한 '광주교도소 사체 암매장 신고상황 종합검토보고'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년)의 '면담보고서'에는 암매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5·18기념재단은 교도소 안팎 암매장 장소에 대한 증언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2017년 말 옛 광주교도소 안팎과 옛 상무대 인근 광주천변, 너릿재 등지에서 암매장 발굴 조사를 벌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20일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 개장 과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이 무더기로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류 작업을 거쳐 유골은 최종 262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승호 기자